

전북 자존의 시대 개막, 열쇠는?

송하진 지사 “역사·문화재 큰 역할 할 것”

제24기 전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촉장 수여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전라북도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12일, 제24기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며 “그간 전라북도는 ‘호남’이라는 틀 안에 몰려 제 몫을 찾지 못했지만 전북은 결코 호남의 일부가 아닌 전라도의 중심이며, 이제 전북 몫을 당

당히 찾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고장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신규 문화재 지정을 심의 결정하는 문화재심의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위촉장 수여는 3개 분과 34명(1분과 11명, 2분과 12명, 3분과 11명)이며, 임기는(2018. 2. 1~2020.

1.31까지) 2년간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현지조사, 지정 심의 기구로, 위촉장 수여 후 전체회의 호선을 통해 전체위원장에 전주대학교 이재운 교수를 선임, 부위원장은 전북대 이태영 교수와 전북대 김창환 교수를 선임, 전체위원장과 부위원장이 1,2,3분과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총 883건(국가지정 262, 도지정 621)의 문화재가 있으며 작년 11월 전북가야 선포 이후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 고분군이 호남 최초로 국가사적으로 지정예고되는 등 5건의 국가문화재를 추가하게 되었고 도지정문화재도 경기전 일월

오봉도 등 19건을 추가 지정했다.

전북도는 2014년 10월 문화유산과 신설 3년 만에 문화유산분야 총 예산이 1,000억원을 넘어섰고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이들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도 267건에 622억원(62%)이며 도지정문화재 예산도 해마다 증액, 금년 100억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도 노학기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은 현재조사 추진중인 극대역사문화자료와 주요 비지정문화재 335건, 전북가야 주요 유적 등 더 많은 문화재를 지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이도영 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미흡 지적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전주2·사진)은 12일 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고충을 덜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192건이던 신고건수가 2017년 45건으로 1/4로 줄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모든 것을 소방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제도가 미비하고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며 “좋은 제도가 있으나 정착 도민에게서 모르고 있다면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보육시설에 성금 전달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12일 전주시에 위치한 보육시설 삼성유면빌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을 김원숙 원장에게 전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한국철도공사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하라”

김중철 도의원, 청년일자리 창출·철도 안정성 확보 주장

김중철 도의원(민주평화당, 전주7·사진)12일 한국철도공사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지역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 중 한 곳이지만 2008년 이후 전국단위 채용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지역출신 채용 비율이 50%이하로 줄었으며, 이로 인해 비연고지 출신의 퇴사, 전출 등으로 기술이전 단절, 현장인력 공백들이 발생해 철도안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 10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심각한 인구위기 지역이고 저출산, 인구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의 3중고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철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성상 작은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철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 구축하라”

1만3000여명 지원 중단 추정... 도·도교육청에 지원대책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 최명철 의원(전주4·국민의당·사진)이 12일, 제35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방학중 결식아동 및 맞벌이가정에 대한 급식지원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겨울방학이 되면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가득한 아이들도 있지만,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지적하고 맞벌이 부모,

한부모, 부모가 병중에 있거나 가혹 혹은 알콜 중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급식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초·중·고 학기중 급식비 지원대상자는 23,961명으로 9.8%이며, 중위소득 기준 60% 이내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3)

28,567명으로 11.7%를 차지하는데 방학 중 급식지원을 받은 학생은 10,933명으로 학기 중 급식지원을 받은 학생의 45% 수준에 머물러 1만 3천여 명이 방학 중 급식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방학 중 결식 아동에 대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합지원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중



위소득 60%를 기준으로 3% 내외는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해 예비로 남겨놓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명철 의원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방학이 되면 자녀의 점심을 차려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읍·면·동별 거점 학교를 지정, 실비 이용과 방학중 결식 아동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열려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국)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2일 오후 2시 전주시 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했다.

설명회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와 전주시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선거비용)의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